

‘갤럭시 S25’ 효과… 삼성, 日 스마트폰 점유율 3위 기업

SAMSUNG

일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 작년 6.3%→2분기 10%
애플 49%, 샤프 6%, 사오미 5%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넓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핵심 기능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능에서 강점을 보이며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10%로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초 6.3%였으나 두 자릿수 점유율에 진입한 것이다. 애플은 49%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일본과 중국의 경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쟁사들을 제치고 약진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일본 브랜드인 샤프는 지난해 2분기 점유율 10%에서 6%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사오미가 8%에서 5%로 하락했다.

일본 시장은 애플 아이폰 선호도가 강해 그동안 한국 스마트폰의 ‘무덤’이라 불려 왔다. 한때는 삼성 로고를 지우

고 제품을 판매했을 정도로 국내 기업에 문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전략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 독일 베를린 IFA2025에서, 애플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애플파크 스티븐잡스 시어터에서 각각 신작 출시 이벤트를 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FE와 갤럭시탭 S11, 애플은 초슬림폰 아이폰17 에어를 포함해 아이폰 17시리즈를 공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5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글로벌 출하량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일 일본에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 폴드7’과 ‘갤럭시 Z플립7’을 출시했다. 제품 출시 첫주 현지 1위 이동통신사 NTT도코모가 운영하는 도코모 온라인숍 판매 순위에서 폴드7이 1위를, 플립7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삼성이 일본에서 갤럭시Z 시리즈를 출시한 첫 주에 도코모 온라인숍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가 구글과의 협업으로 AI 기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한다. 젊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폴더블폰 제품군을 다양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따른다.

삼성전자의 폴드7과 플립7 출시 효과는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3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 예정인 S26에서도 이번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갤럭시 Z 폴드7·플립7 판매량이 전작 대비 15%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 기업 ‘반도체 유리기관’ 주도권 잡는다

글로벌 선두 ‘인텔’ 사업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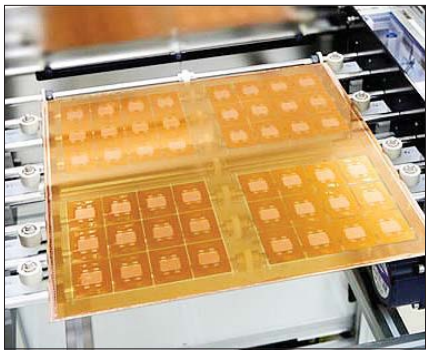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
美에 세계 첫 유리기관 생산라인

삼성전기, 인텔 출신 인재영입
LG이노텍·BH 등 초기단계 연구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로 꼽히는 유리기관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 기업으로 일부 이동할 조짐이다. 인텔이 최근 프로젝트를 철수하며 시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SKC와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들어 연속된 적자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 유리기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2분기까지 연구개발(R&D)부문 축소가 진행됐고, 지난 7월 이후에는 내부 개발을 중단하고 외부 공급망 활용 검토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가 큰 신규 소재·패키징 분야보다 본업인 파운드리와 CPU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강 듀안(Duan Gang) 등 핵심 연구 인력이 삼성전기로 이직하면서 사업 정리 기조가 명백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과 맞바꿔 89억 달러(한화 약 120조38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했으나, 해당 자금은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의 반도체용 유리기관.

/뉴시스

미국 내 로직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와 국방부의 ‘보안 반도체 독립화’ 프로그램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위험도가 큰 신규 소재·패키징 분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이탈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에 탄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와 삼성전기가 대표적이다. 엡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관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7500만 달러(한화 약 1043억원) 규모의 칩스 액트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아직 본격 상업화 단계는 아니지만 시제품 생산 및 파일럿 라인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기 역시 인텔 출신 인재 영입을 계기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LG이노텍, BH 등도 초기 단계 연구에

가세하면서 국내 기업 전반에 걸쳐 유리기관 기술 확보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리기관은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에서 기존 유기기관(ABF)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꼽힌다. 초박막·저결함 특수유리를 활용해 열팽창 계수를 낮추고, 배선 미세화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HPC(고성능컴퓨팅)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AI 서버 확산과 HBM 수요 증가 역시 유리기관 상용화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다.

상용화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빠르면 2년 내 초기 양산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기술 난이도와 수율 문제를 고려하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기존 ABF 대비 경쟁력이 확실해 장기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유리기관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본격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기존 실리콘 유기기관 대비 비용 경쟁력이 뚜렷해, 장기적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LG엔솔, 벤츠에 15조 규모 배터리 공급

2029년부터 2035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100GWh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 계약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로 평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 및 메르세데스-벤츠 AG와 각각 75GWh, 32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미국에서 오는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대당 70kWh 기준으로 약 1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업계가 추산한 46시리즈 배터리의 가격은 kWh당 90~110달러 수준

으로,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 조건은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물량이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46시리즈 배터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통형 46시리즈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단축한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계약 규모만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까지 체결한 46시리즈 계약 중 최대 물량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46시리즈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 계약은 총 150GWh를 넘어섰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건설·R&D투자 상향… 2분기 GDP 0.7% ↑

한은, 속도치 보다 0.1%p 상승

우리나라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리려면 하반기 0.7% 이상 나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속도치와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했다.

김화용 국민소득부장은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 실적치가 예상을 상회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들이 이어

지며 상향 수정됐다”며 “수출입은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상향돼 상향 수정됐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2.5%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0.8% 감소했지만,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이 각각 0.7%, 0.9% 증가해 0.8%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파업 장기화, 공장 해외이전 부채질”

》1면 ‘조선업 혼풍에도…’서 계속

이미 범용 반도체와 2차전지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철강까지 동반 타격을 입게 된다면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높은 인건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도 국내에서 생산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

황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미국 관련 사업에는 미포를 활용하고, 중형 선박은 베트남·필리핀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해외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